전문의약품

아자렐정 10mg 15mg 20mg

(리바록사반)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아자렐10밀리그램 : 1정(93.0mg) 중
- 유효성분 : 리바록사반(별칭) 10.0mg
- 첨가제(동물유래성분) : 우유수화물(소, 우유)
- 기타 첨가제 : 라우릴황산나트륨, 미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르산마그네슘, 에프탈레드잉크, 오파드라이 I 분홍색(85F66503),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크로스카르멜로오스나트륨

아자렐15밀리그램 : 1정(93.0mg) 중
- 유효성분 : 리바록사반(별칭) 15.0mg
- 첨가제(동물유래성분) : 우유수화물(소, 우유)
- 기타 첨가제 : 라우릴황산나트륨, 미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르산마그네슘, 에프탈레드잉크, 오파드라이 II 갈색(85F66507),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크로스카르멜로오스나트륨

아자렐20밀리그램 : 1정(124.0mg) 중
- 유효성분 : 리바록사반(별칭) 20.0mg
- 첨가제(동물유래성분) : 우유수화물(소, 우유)
- 기타 첨가제 : 라우릴황산나트륨, 미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르산마그네슘, 에프탈레드잉크, 오파드라이 II 갈색(85F66506),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크로스카르멜로오스나트륨

[성상]

아자렐10밀리그램 : 분홍 빨간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아자렐15밀리그램 : 밝은적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아자렐20밀리그램 : 갈색을 띤 빨간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효능·효과]

1.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2.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재발 감소
3.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 후 재발 감소
4. 하지의 주요 정형외과 수술(슬관절 또는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

[용법·용량]

이 약 10 mg은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해야 하며, 15 mg 및 20 mg은 식사와 함께 투여한다.

1. 성인
   1)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이 약의 권장용량은 1일 1회, 1회 20 mg이다. 중등도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30-49 mL/min)와 권장용량은 4일 1회, 1회 15 mg이다. 이후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스텐트 시술의 경적 관상동맥중재술(PCI)을 받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는 투여 시작 시점부터 1일 1회 15mg [중등도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30-49 mL/min)는 1일 1회 10 mg] 과 P2Y12 억제제를 최대 12개월간 병용 투여한 제한된 경험이 있다. ('12. 임상시험 정보' 참조)
   2)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재발 위험 감소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를 위한 이 약의 초회 권장용량은 처음 3주간 1일 2회, 1회 15 mg이다. 이후의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를 위한 유지 권장용량 및 재발 위험 감소를 위한 권장용량은 1일 1회, 1회 20 mg이다.
   심재성 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치료를 위한 투여(최소 6개월)를 완료한 후 재발 위험 감소를 위한 연장 투여 시 권장용량은 1일 1회 10mg이다. 치료 기간 및 치료 용량은 출혈 위험성 대비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재발 위험성에 대한 개인별 평가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투여 기간	투여 횟수	1일 투여 용량
심재성 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 위험 감소	1-21일째	15mg씩 1일 2회	30mg
	22일째부터	20mg 1일 1회	20mg
심재성 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재발 위험 감소	6개월 이상 투여 후	10mg 1일 1회	10mg

   이 약의 1일 최대 용량은 치료의 처음 3주간에는 30 mg, 그 이후 치료 기간에는 20 mg이다.
   3) 하지의 주요 정형외과 수술(슬관절 또는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이 약의 권장용량은 1일 1회, 1회 10 mg이다. 초회투여는 지혈이 확인되면, 수술 후 6~10시간 내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투여기간은 외과수술 종류에 따른 환자 개개인의 정맥 혈전색전증의 예방 위험성에 따라 달라지나, 고관절 치환술 환자의 경우 5주, 슬관절 치환술 환자의 경우 2주의 투여기간이 권장된다.
   4) 이 약의 복용을 잊었을 경우
   만약 이 약의 복용을 잊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놓친 용량을 복용하도록 한다.
   ① 15 mg을 4일 2회 복용중인 환자 : 즉시 생각나면 복용하며 하루 두 번 15 mg씩 복용하도록 한다.
   ② 10, 15, 20 mg을 1일 1회 복용중인 환자 : 놓친 용량을 즉시 복용한다. 다음날부터는 1일 1회 투여를 지속한다. 놓친 용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1 일 두여용량이 권장용량의 두배가 되어서는 안된다.
2. 약물의 변환
   1) 비타민K길항제에서 이 약으로의 전환
   ①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비타민 K 길항제 치료를 중단하고 국제표준화비율(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 3.0이 되면 이 약의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
   ②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재발 위험 감소
   비타민 K 길항제 치료를 중단하고 INR ≤ 2.5이 되었을 때 이 약의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 용량에 상관 없이 이 약을 복용한 후 INR 값이 기짓으로 올라갈 것이다. INR은 이 약의 항응고활성을 측정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이 약에서 비타민 K 길항제로의 전환
   이 약에서 비타민 K 길항제로 바꾸는 동안 부적절한 항응고가 일어날 수 있다. 다른 항응고제로 바꾸는 환자는 INR≥2.0이 될 때까지 비타민 K 길항제를 병용해야 한다. 이 약을 중단한 경우에는 마지막 복용 24시간 후에 비타민 K 길항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INR 검사를 할 수 있다.
   3) 비경구 항응고제에서 이 약으로의 전환
   비경구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다음 예정된 비경구제제(예, 저분자헤parin제)의 투여시간으로부터 0~2시간 전에는, 계속하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는 것은 비경구제제(예, 정맥내 미분획heparin)를 중단한 시점에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한다.
   4) 이 약에서 비경구 항응고제로의 전환
   이 약을 중단하고, 이 약의 다음 복용시점에 비경구 항응고제의 투여를 시작한다.
3.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 청소율 50-80 mL/min인 경증의 신장애 환자에서는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크레아티닌 청소율 15 mL/min 미만인 중증 신장애 환자에 대한 임상적 경험이 없으므로 이 약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1)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중등도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30-49 mL/min)
   및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15-29 mL/min)에서의 권장용량은 1일 1회, 1회 15 mg이다.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15-29 mL/min)에 대한 제한적인 임상경험에 따르면 이 약의 혈중 농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투여한다.
   2)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재발 위험 감소
   중등도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30-49 mL/min)에서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15-29 mL/min인 중증의 신장애 환자에 대한 제한적인 임상경험에 따르면 이 약의 혈중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므로 이 환자에게는 투여한다.
4. 간장애 환자
   이 약은 혈액응고장애와 관련한 간질환 환자와 중등도(Child Pugh B) 및 중증(Child Pugh C)의 간장애 환자에게는 투여를 피한다. 이러한 환자에서 이 약의 노출증가 및 출혈위험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5. 정제를 삼킬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사용 직전에 이 약을 부수어 물 또는 사과소스와 같은 음료와 섞어서 경구로 투약할 수 있다. 또한 이 약을 부수어 위장관 튜브를 통해 소량의 물과 함께 투약 할 수 있다. 이 약을 위장관 튜브로 투약하기 전에 튜브가 제대로 위치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하고, 튜브를 통로로 세척한 후에 투여해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다른 항응고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출혈의 대해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이 약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경우 주의하여 투여한다.

2) 중증의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10. 과량투여시의 처치항 참고).

   ① 약역학적 또는 약동학적 모델링 모두 리바록사반(별칭)의 혈중 농도와 출혈 위험성 사이에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이 약의 노출정지 및 기적인 모니터링이 출혈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과량투여 및 응급수술에 도움이 되는 경우 anti-Factor Xa 정량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임상적으로 유의한 출혈 환자(예, 두개내 출혈, 위장관 출혈)
3) 혈액응고장애와 관련한 간질환 환자와 Child Pugh B 및 C 등의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출혈 위험성과 관련된 간질환 환자
4) 임부 및 수유부
5) 이 약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없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 -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6) 다음과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출혈 위험성이 증가된 환자
   ① 최근의 위장관 궤양 병력
   ② 최근의 두개내 또는 척추 손상
   ③ 최근의 뇌 또는 척수 손상
   ④ 식도정맥류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⑤ 동정맥기형(arteriovenous malformations)
   ⑥ 혈관성 동맥류(vascular aneurysms)
   ⑦ 출혈 위험이 높은 악성 종양(neoplasm)이 있는 환자
7) 다른 항응고제의 병용시료: 비분획 헤파린(Unfractionated Heparin, UFH), 저분자량 헤파린(enoxaparin, dalteparin 등), 헤파린 유도체(fondaparinux 등), 경구용 항응고제(warfarin, apixaban, rivaroxaban 등) 등의 다른 항응고제와 병용치료 하는 경우. 단, 이 약과 서로 전환하는 경우 비분획 헤파린(UFH)을 개방 중심 정맥 또는 동맥 카테터(patent cerebral venous or arterial catheter)를 유지하기 위해 투여하는 경우 제외함
8)급성관상동맥증후 치료시 뇌졸중 또는 일과성허혈성 발작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의 항혈소판제와의 병용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하게 투여할 것

1)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15-49 mL/min)에서 P-gp 억제 및 경증~중등도의 CYP 3A4 억제효과가 있는 약물을 병용투여할 경우 이 약의 혈중 농도 상승으로 인하여 출혈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주의하여 투여한다. 이 약 투여시의 임상적 유의성이 출혈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2) 다른 항응고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출혈 위험성이 증가된 환자
   ① 선천적 또는 후천적 출혈성 질환
   ② 알 조절되지 않는 중증의 동맥성 고혈압
   ③ 활동 궤양성 위장관 질환
   ④ 혈관성 망막병증
   ⑤ 기관지확장증이나 폐출혈 병력
3)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NSAIDs), 혈소판 응집 억제제, 다른 항응고제 또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및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s)와 같이 지혈작용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병용투여하는 환자
4) 아스피린 혹은 아스피린 및 클로피도그렐과 이 약을 병용투여하고 있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의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NSAIDs) 투여는 출혈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주의해야하며, 이 약 투여시의 임상적 유익성이 출혈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4. 이상반응

1) 이 약에 대한 안전성은 아래 표와 같이 53, 150명의 환자가 포함된 13개의 3상 임상용 특허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평균 9.8 일상에서의 환자수, 수일 투여용량 그리고 투여기간은 아래와 같다.

적응증	환자수*	1일 투여용량	최대투여기간
슬관절 또는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6,097명	10mg	39일
의학적으로 아픈 환자에서의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	3,997명	10mg	39일
심재성 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 위험 감소	6,790명	1-21일째 : 30mg 22일째부터 : 20mg 최소 6개월 투여후 : 10mg 또는 20mg	21개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7,750명	20mg	44개월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을 경험한 환자에서 죽상동맥혈전성 사건의 발생률 감소	10,225명	5mg 또는 10mg 이 스트롬보시스 병용 혹은 아스피린 및 클로피도그렐 또는 티클로피딘과 병용 투여	31개월
관심 등록 질환(CAD) 또는 말초 동맥 질환(PAD)이 환자에서 아스피린과 병용 시 죽상동맥혈전성 사건의 위험 감소	18,244명	아스피린 100mg과 5mg의 병용 또는 10mg 단독 투여	47개월

* 적어도 한번 이상 리바록사반을 투여받는 환자

2) 이 약은 그 약리학적인 작용기전으로 인하여 출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장기에서의 잠재출혈(니출성출혈 외출성출혈 포함)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출혈의 징후 및 증상, 그 초점의 심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진단 절차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혈색소 농도 및 헤마토크릿 측정은 혈액손실의 임상적 유의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어떠한 출혈이든 혈역학적 불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적절한 수액 및/또는 혈액제제 투여 및 출혈원의 수술적 지혈을 고려해야 한다.

3) 이 약과 관련하여 보고된 이상반응은 아래 표와 같다. 빈혈의 결과로써 때때로 출혈 또는 혈성장과 같은 심장혈관성 증상이 관찰되었다.

   관련 지침은 안전 고려사항 및 적절한 수술 후 중증출혈 예방 이후 지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합병증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항응고제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때 출혈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약과 관련하여 보고된 이상반응은 아래 표와 같다. 빈혈의 결과로써 때때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합병증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항응고제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때 출혈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1. 3상 임상연구에서 보고된 이 약과 관련한 이상반응

분류	흔함	흔하지 않음	드물
혈액 및 림프계	빈혈 (임상검사치 포함)	혈소판증가증 (혈소판 수증가 포함)*	
신경계		현기증, 두통	뇌출혈**
안구	안구 출혈 (결막 출혈 포함)		
위장관계	치은출혈, 위장관출혈(흑색변 포함), 위염증, 복통, 소화불량, 구역, 변비*, 설사, 구토*	구강 건조	
일반적인 증상 및 투여부위	발열*, 말초 부종, 전신적인 힘과 에너지 감소(피로, 무력증 포함)	불편감 (권태감 포함)	국소 부종*
간담도계		간장애	
피부계		발진, 가려움증(전신 및 국소적 가려움 포함), 멍듦, 탈모증	
면역계			알레르기성 반응, 알레르기성 피부염
손상, 중독 및 시료합병증	치료 후 출혈 (수술 후 빈혈, 상처 부위 출혈 포함)	상처부위 분비물*	혈관 가성동맥류*
실험실적 검사치	트랜스아미나제 증가	혈청 빌리루빈 증가,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증가*, LDH 증가*, 리파아제 증가*, 아밀라제 증가*, 전이효소(GGT) 증가	빌리루빈 포함체 증가/ALT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사지 통증*	관절통	근육출혈
신경계	어지러움, 두통	뇌 및 두개 내 출혈, 실신	
신장 및 비뇨기계	비뇨생식기계 출혈 (혈뇨, 혈결과*, 혈청 크레아티닌 증가, 혈청 요소 증가 포함)*		
호흡계	비출혈, 객혈		
피부 및 피하조직	가려움(혈관지 않게 전신성 소양증 포함), 발진, 반상출혈, 피부 및 피하 출혈	두드러기	
혈관계	저혈압, 출혈		

A: 하지의 주요 정형외과 수술 후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에 관찰됨
B: 55세 미만 여성의 심부정맥혈전색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와 재발 위험 감소에서 매우 흔하게 관찰됨.
C: 경피경로에 의후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예방 요법 시 흔하지 않게 관찰됨.

4) 국외 자발적 보고 : 경험

다음 이상반응들이 이 약의 투여와 관련 되어 보고되었다.

면역계 : 혈관부종 및 알러지성 부종,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포함한 아나필락시스 반응

간담도계 : 담즙정체, 간염(간세포손상 포함)

혈액 및 림프계 : 혈소판감소증, 무과립구증

피부 및 피하조직 : 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 호산구증 및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반응(DRESS)

5)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①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3,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 약을 처방받은 안과전문의 상담의 3.43%(103/3,007명, 126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0.20%(6/3,007명, 10건)로 빈혈 0.07%(2/3, 007명, 2건), 관절통, 발열, 상세불명의출혈, 수술후출혈, 심근경색증, 출혈성심이장애, 혈뇌, 복부팽만 각 0.03%(1/3,007명, 1건)로 보고되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0.07%(2/3, 007명, 총 2건)로 심부정맥혈전증, 말굴혈조 각 0.03%(1/3,007명, 1건)가 보고되었다.

② 재심사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이 약에 대한 국내 재심사 이상사례 및 지발적 부작용 보고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보고자료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종합평가한 결과,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이 약품 고유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결과가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대사 및 영양계 : 당뇨병
- 심장계 : 심방세동, 심실조기수축, 심장정지
- 혈관계 : 뇌경색
- 호흡기계 : 기래출혈, 천식, 후두염
- 소화기계 : 연하곤란, 장운동장애
- 근골격계 : 골절, 관절염, 관절병증, 횡문근융해
- 비뇨생식기계 : 요로감염, 방뇨절환, 생식성, 월경곤증, 전립선비대성
- 전신 및 투여 부위 이상 : 독감유사증후, 약물과민반응, 스티븐스-존슨증후군

5. 일반적 주의

1) 출혈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 ≥ 30 mL/min 미만)는 리바록사반의 혈중 농도가 유의적으로 상승(평균 1.6배) 하여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2) 임상시험에서 경구 투여시 리바록사반 투여군은 비타민K 길항제 투여군에 비해 점막출혈(비출혈, 잇몸, 위장관, 비뇨생식기 등) 및 빈혈이 더 자주 보고되었다. 이 약 투여시 적절한 임상적인 평가와 함께 혈색소농도 및 헤마토크릿 검사를 통해 출혈 유무를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군(3 신중투여항 참고)에서 출혈의 증후 및 증상과 빈혈에 대한 주의깊게 모니터해야 한다. 원인이 불명확한 헤모글로빈 또는 혈압의 저하가 있을 경우 출혈부위를 찾아야 한다.

3)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출혈성 합병증이 나타난다면, 다음번 복용을 놓추거나 적절히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이 약을 대략 2~4시간이 배감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장손상이 있는 환자는 혈액투석을 통하여 리바록사반의 혈중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적절한 증상치료가 필요하다. 물리적 압박 (예, 중증의 비출혈 경우), 출혈 조절 시술을 포함한 외과적 지혈, 체액대체 및 혈액학적 보조, 혈액 제품 (관련 빈혈 또는 응고증에 따라 농축적혈구 또는 신선 동결 혈장) 또는 혈소판과 같은 적절한 증상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

위의 방법으로 출혈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프로트롬빈 복합 농축액 (Prothrombin complex concentrate, PCC), 활성 프로트롬빈 복합 농축액 (Activate PCC, APCC), 재조합 인자 VIIa 등과 같은 특정한 procoagulant reversal agent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 약을 받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제품을 사용한 예후 개선의 임상경험이 없다. 프로타민황산염과 비타민 K는 리바록사반의 활성을 억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트리메시이산염을 사용한 제한적 경험이 있으며, 아미노카프로산 및 아프로티닌을 사용한 경험이나 사례가 없다.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들에게 전신적 지질제인 데스모프레신을 사용한 경험이나 사례가 없다. 이러한 약물은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4) 이스피린 단독 혹은 아스피린 및 클로피도그렐과 병용투여하고 있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중 7%에 해당하는 고령자 또는 체중이 60kg이만인 환자에게서 이 약 투여시 주의해야 한다.

5) 이 약은 혈장단백결합 수율 환자에서 (약 92%) 혈중 혈액흡수율이 높아서 혈액투석에 의한 제거 경향이 없으므로, 이러한 환자에 투여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고관절 골절 수술을 포함한 하지에 관련된 골절 수술 환자에 대한 비-중재 연구에서 심장혈관사건을 고려하였다.

6) 신경계(경막외/척수) 마취 또는 요추천자를 받은 환자가 색전형적 발생을 막기 위해 항혈전제투여를 받은 경우, 경막외 혹은 척수 혈종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장기적인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경막외 깊이 카테터나, 지혈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사용시 더 증가할 수 있다. 외상성 또는 반복성 경막외 또는 요추천자 시에도 증가할 수 있다. 신경장애의 징후나 증상(다리의 저림 또는 허약감, 방광 또는 장기능 장애 등)에 대해 자주 모니터해야 하고, 이러한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의사는 항응고제를 받거나 받을 환자에게 신경축 시술을 하기 전에 위험성 대비 유익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7) 이 약 투여와 신경축(경막외/척수) 마취 또는 요추천자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잠재적 출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약의 약동학적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 카테터 삽입 혹은 제거 또는 요추천자는 이 약의 항응고 효과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개의 환자에서 항응고 효과가 충분히 낮아진 시점은 알 수 없다.

① 10mg: 이 약 10mg은 최종 투여 후 최소 18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경막외 카테터를 제거한다. 카테터를 제거한 후에는 최소한 6시간이 경과된 후에 다음번 투여를 시작한다. 천자 중 의심이 발생한 경우는 24시간 동안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② 15, 20mg: 이 약 15~20mg은 신경축(경막외/척수) 마취 또는 요추천자를 받은 환자에서 상당수의 경험이 있다. 이 약 15, 20mg으로 이 약의 약동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투여 후 만2일이 최소 24시간 이후에 경막외 카테터를 제거한다. 카테터를 제거한 후에는 최소한 6시간이 경과된 후에 다음번 투여를 시작한다. 천자 중 외상이 발생한 경우는 24시간 동안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③ 2.5mg: 이 약 2.5mg은 신경축(경막외/척수) 마취 또는 요추천자를 받은 환자에서 아스피린 병용 유무에 관계없이 경험이 없다. 따라서, 이 약은 이러한 환자에서 마땅히 권장되지 않는다.

8) 침습시술 또는 외과적 시술이 요구되는 경우, 이 약 10, 15일 20mg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그 기한이 가능하면 48시간 이상, 15일 24시간 전에 2.5mg은 적어도 12시간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혈소판 응집 억제제를 병용하는 환자가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elective surgery) 항혈소판 효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혈소판 응집 억제제는 해당 절부 문서에 지시된 대로 투여이 중지 되어야만 한다. 만약 시술이 지연될 수 없다면, 출혈 위험 증가는 시술의 유급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출혈 또는 주요 출혈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약을 임상적 상황이 허락하고 적절한 시점에 다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시점이 따로여러시간면 가능한 빨리 재투여되어야 한다.

9)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적절한 대체 항응고요법 없이 이 약을 중단한 경우 혈전증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 약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 혈전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약을 투여한 후 적어도 24시간 동안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다.

10) 안과심장전만증 환자 : 리바록사반 투여군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지발보와 함 출혈은 혈소판 모양을 피할 수 있다. 혈소판 기능 장애 또는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서 출혈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혈소판 기능 장애는 약물 또는 혈소판 질환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혈소판 기능 장애는 시술의 위급성에 따라 혈소판 수혈 또는 데스모프레신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11)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폐색전증 환자 및 혈전용해제 혹은 폐색전절제술이 필요한 환자에서 사용안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약은 이러한 환자에서 마땅히 권장되지 않는다. 대체요법으로 정맥내 미분획 헤파린에 대한 임상경험이 있다.

12)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 이 약은 아스피린 단독 또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과의 병용투여는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다른 항혈소판제제, 프라수그렐, 티카그렐로르 및 티클로피딘의 병용투여 또한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이 약은 혈소판 응집 억제제 투여 없이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2.5mg 계획)

13) 심장동맥조영술(cardioversion)이 필요한 환자에게 이 약 투여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이전에 항응고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면, 경식도 심초음파(transesophageal echocardiogram)하에 적절한 항응고를 위하여 적어도 심房동전환 시간이 이전에 이 약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모든 환자에 대하여, 심房동전환 이전에 이 약을 처방한대로 복용하였는지 확인 해야만 한다. 치료 시작시기와 기간을 결정할 때, 심房동전환을 받는 환자의 항응고 치료에 대한 개정된 심房세동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야만 한다.

14) 사전 조사 없이 약에 의한 무과립구증이 보고되었다. 호중구 수치의 감소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이 약의 투여는 피해야 한다. 소수의 노출증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의 병력이 있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유효성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환자들에서 치료의 이익이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15) 출혈성 또는 말굴성 뇌출혈 병력이 있는 관심 등록 질환(CAD) 또는 말초 동맥 질환(PAD)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자들에게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1개월 이내 허혈성, 비열공성 뇌출혈 병력이 있는 관심 등록 질환(CAD) 또는 말초 동맥 질환(PAD) 환자에 대해서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뇌출혈 위험성 대비 유익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16) 혈액응고장애 환자 : 혈액응고장애 환자에 대한 이 약을 처방한대로 복용하였는지 확인 해야만 한다. 치료 시작시기와 기간을 결정할 때, 심房동전환을 받는 환자의 항응고 치료에 대한 개정된 심房세동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야만 한다.

17) 사전 조사 없이 약에 의한 무과립구증이 보고되었다. 호중구 수치의 감소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이 약의 투여는 피해야 한다. 소수의 노출증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의 병력이 있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유효성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환자들에서 치료의 이익이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18) 출혈성 또는 말굴성 뇌출혈 병력이 있는 관심 등록 질환(CAD) 또는 말초 동맥 질환(PAD)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자들에게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1개월 이내 허혈성, 비열공성 뇌출혈 병력이 있는 관심 등록 질환(CAD) 또는 말초 동맥 질환(PAD) 환자에 대해서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뇌출혈 위험성 대비 유익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17) 혈전지질항체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혈전증 병력의 환자에게 이 약을 포함한 DOACs(Direct oral Anticoagulants)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특히 루푸스항응고인자, 항카디오리핀항체 및 베타2당단백 혈청저항력 양성인환자에게 DOAC을 이용한 치료는 비판막 R 길항제와 비교하였을 때 재발성 혈전증 발생 위험의 증가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6. 상호작용

1) CYP3A4 및 P-gp 억제제

이 약과 강력한 CYP3A4 억제제인 아졸계 항진균제(예,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보리코나졸, 포사코나졸)나 HIV 프로테아제 저해제(예, 리토나비르)의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약물은 CYP3A4와 P-gp에 대한 강력한 저해제로, 리바록사반의 혈중 농도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약물과 리바록사반에 의한 항응고 효과 증가에 출혈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출혈 정간과제인 플로라스졸의 경우 병용투여시 리바록사반의 노출에 미치는 영향이 덜 하므로 이 약과 병용시 주의해서 투여할 수 있다.

2) 케토코나졸 : 리토나비르

이 약을 케토코나졸(400 mg, 1일 1회) 또는 리토나비르(600 mg, 1일 2회)와 병용투여한 경우, 리바록사반의 평균 AUC는 각각 2.6배 및 2.5배, 평균 C_{max}는 각각 1.7배 및 1.6배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약력학적 효과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출혈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약과 케토코나졸 또는 리토나비르 (이트라코나졸, 보리코나졸, 포사코나졸) 사이 프로테아제 저해제(예, 리토나비르)로 병용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약물은 CYP3A4와 P-gp에 대한 강력한 저해제로, 병용투여 시 리바록사반의 혈중 농도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약 사용의 항응고 효과를 증가시켜 출혈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간 질환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약물은 CYP3A4와 P-gp에 대한 강력한 저해제로, 리바록사반의 혈중 농도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간 질환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약물은 CYP3A4와 P-gp에 대한 강력한 저해제로, 병용투여 시